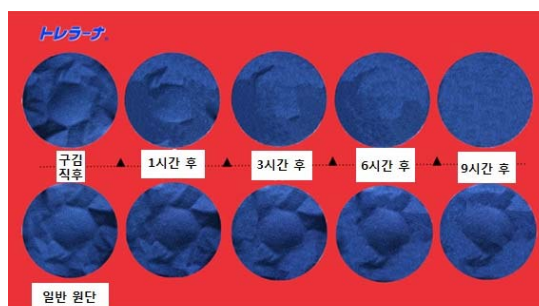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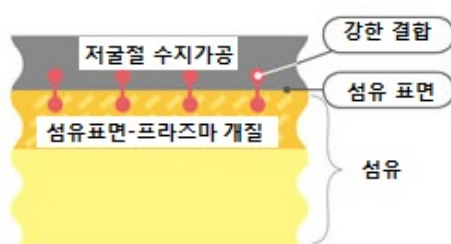
도레이, 학생복용 기능성 소재 개발 강화

최근 도레이의 기능성 폴리에스터 장섬유·양모 복합소재 '토레라나'는 학생복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내 많은 학교에서 교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레라나'는 장·단복합 소재로서 워셔블성, 형태안정성 및 신축성이 특징이며, 폴리우레탄 탄성사의 대체 소재로 학생복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토레라나'는 15% 이상의 신도와 자연스러운 신축성을 지니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토레라나' 구김회복성능 비교>

이 외에도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 용도로 나노가공을 응용한 고발색소재 'DEELEM NT'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DEELEM NT' 소재 구조>

또한, 시장에서는 폴리에스터 100 % 소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 도레이의 합성섬유에 대한 강점을 살린 학생복 원단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오염이 쉽게 제거되는 방오가공 'TECHNOCLEAN'의 응용과 고시인성 안전복용 소재 'BRIANSTARTM'의 적용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고시인성 소재 'BRIANSTAR'>

♠ 섬유뉴스(2015. 5. 29)